치사

불교중앙박물관은 2007년 개관 이래, 성보 보존에 진력을 다하고 다양한 전시를 통해 성보聖寶의 참뜻을 사부대중에게 친절하게 안내해 왔습니다. 명실상부한 종단 대표 성보박물관으로서 문화포교에 앞장서온 공덕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수고에 더하여,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소중한 마음을 담아, 2015 특별전 <불전장엄, 붉고 푸른 장엄의 세계>를 펼쳐 내었습니다. ‘불전佛殿’은 부처님을 모신 공간이자, 불전은 불국토를 형상화한 공간입니다. 그러기에 불전 외형을 포함하여 내부의 불화, 장엄 하나하나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부대중은 부처님과 제 보살들만 바라 볼 뿐 부처님과 보살을 모시기 위한 공간과 여러 장엄구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하였습니다.

역불승유抑佛崇儒를 국시로 하던 조선시대는 건물에 대한 치장이 제한을 받았지만, 사찰만큼은 단청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불전으로서의 존엄이 필요했고 사부대중들이 간절히 원하는 불전의 장엄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불전의 장엄은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이래로 계속 이어져온 우리의 전통문화입니다.

‘불전’은 단순히 부처님을 모신 공간이 아니라 불국토를 현세에 구현하려는 사부대중의 염원을 담은 곳입니다. 이번 전시는 이런 염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알리는 좋은 전시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동안 불전장엄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이번 전시를 통해 불전장엄이 재조명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항상 초발심初發心으로 정진하며 훌륭한 전시를 감동으로 전하는 불교중앙박물관장 화범스님과 소임자 여러분의 진력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각자의 위치에서 소중히 성보를 보존하고 이번 전시를 위해 선뜻 성보를 내어주시신 전국 각 사찰과 여러 기관에도 고마운 마음을 드립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온 세상이 불국토의 감화로 가득하고, 우리의 삶에서 모두의 행복으로 회향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59(2015)년 5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